제9장 가르침을 펼쳐라

도 입

옛날 군주가 정치를 잘 하여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을까? 바로 가르치는 일이다. 잘 먹고 잘 살면서 가르치는 일이 없다면 인간은 금수(禽獸)와 같은 모습이 될까 우려해서이다. 인간의 도리를 알고 익혀야 한다고 여겼다. 물론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교육제도는 없었지만, 성현들은 학교를 세워서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가르쳤다.

율곡선생은 이 장에서 교육을 일으키는 근본, 가르침의 내용, 학교를 세우는 일, 교육을 통해 풍속을 바로잡는 일 등을 소개하였다. 내용이 많아서 간단히 정리하였다.

본 문

[율곡의 풀이]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화(敎化)하는 것은 이치와 사세의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 다음에, 가르침을 펼치는 문제로 끝을 맺는다.

[논어]

법령으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형벌을 모면하려고만 할 뿐 부끄러움이 없다. 덕으로 인도하고 예(禮)로 다스리면 부끄러움을 알고, 또 착한 올바르게 될 것이다.

[서경]

순(舜)이 말하였다. “설(契)아, 백성들은 서로 친하게 지내지 않으며 오품(五品)을 따르지 않는다. 그대

에게 사도(司徒)의 직을 맡기니, 삼가 오교(五敎)를 펴되 너그러이 하라."

〈주석〉 채씨(蔡氏)가 말하였다. "오품(五品)은 부자·군신·부부·장유·붕우 다섯 가지 인륜의 명칭과 등급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도리가 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편히 거처하면서 가르침이 없다면 새나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성인이 이 점을 근심하여 설(契)에게 사도(司徒)의 직을 주어 인륜을 가르치게 하였다. 부자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고, 군신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며, 부부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하며, 벗들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예기]

옥은 갈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군자가 만일 백성을 교화하여 풍속을 이루려 하면 반드시 그 배움으로부터 말미암아야 한다.

[예기]

옛날의 교육 기관으로 가(家)에는 숙(塾)이 있고, 당(黨)에는 상(庠)이 있었으며, 술(術)에는 서(序)가 있고, 국(國)에는 학(學)이 있다.

〈주석〉 진씨(陳氏)가 말하였다. "옛날에는 25가(家)가 한 여(閭)가 되어 한 거리에 같이 있었다. 거리의 입구에는 문이 있고 문 곁에는 숙(塾)이 있다. 백성으로서 가(家)에 있는 이는 조석으로 숙에서 교육을 받는다. 500 가가 한 당(黨)이 되는데 당의 교육 기관을 상(庠)이라 한다. 상에서는 여숙(閭塾)에서 뽑혀 올라온 사람을 가르친다. 술(術)은 주(州)인데 2500가가 한 주가 된다. 주의 교육 기관을 서(序)라 하는데 당학(黨學)에서 뽑혀 올라온 사람을 가르친다. 그리고 천자가 거하는 도읍과 제후의 국중(國中)의 학문을 국학(國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임금의 맏아들과 중자(衆子)·경대부와 선비의 아들, 그리고 준재로서 뽑혀 올라온 선비들을 가르친다."

[논어]

그 귀신이 아닌데 제사 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다.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그 귀신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제사를 지낼 귀신이 아니라는 말이요, 첨(諂)은 잘 보이기를 구하는 것이다."

[율곡의 풀이]

하늘이 이 백성을 낳을 때에 그들에게 사목(司牧)을 세웠는데, 사목은 실로 임금과 스승을 겸하였다. 목자(牧者)로서 그들을 기르고, 임금으로서 그들을 다스리며, 스승으로서 그들을 가르친 뒤에 이 백성들이 그 삶을 편히 즐길 수 있고 그 악을 개혁할 수 있으며, 그 선을 흥기할 수 있다.

대개 옛 도리라는 것은 부자간에는 인(仁)을 다하고 군신 간에는 의(義)를 다하고, 부부간에는 별(別)을 다하고, 장유(長幼) 간에는 그 예(禮)를 다하고, 붕우 간에는 그 신(信)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 천성에 근거하여 아름다운 덕을 발하는 것이니, 본래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앞에서는 기품(氣稟)에 구애를 받고, 뒤에서는 물욕에 빠진 데다 항산(恒産)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전전하며 살 곳을 잃고, 죽음을 면하기도 어려워 그 양심을 잃어버리고, 다만 형벌 무서운 것만 알고, 명의(名義)와 절개를 지키는 것을 근심하지 않으며, 간사함을 더하고 거짓을 늘려서 교묘하게 법망(法網)을 피할 뿐이다.

그리하여 윗사람은 교화에도 방법이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형법의 주밀하지 못한 것만 근심하여 조항을 첨가하여 속이는 것을 막으려고 하니, 법이 주밀해질수록 간사함은 더욱 심해져서 풍속이 날로 무너지고 세도(世道)가 날로 야비해져서 구제할 수가 없게 된다. 때로 간혹 마음에 느낌이 일어 세상의 악습을 교정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교(敎)를 베푸는 데는 근본이 있고, 백성을 교화하는 데는 차례가 있는 것을 모르고, 한갓 명분만 생각하고 그 실상을 얻지 못하며, 근본을 뒤로 하고 말단을 우선시하니 가르침은 있어도 효과가 없다.

반드시 임금이 먼저 궁행하기를 힘쓰고, 어진 이를 얻어 같이 다스리며, 조정의 명령은 인심을 감동시켜, 전도(顚倒)되어 의탁할 곳이 없는 백성으로 하여금 모두 다 흥기할 생각을 품게 한 뒤에야 그들의 폐단을 제거하고 괴로움이 되는 것은 풀어 주며, 그들에게 동네를 정해 주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고, 학교를 설립하여 가르쳐 갈 길을 가리켜 주며, 예(禮)를 제정하여 단속해서 절도를 지키게 하고, 향사(鄕射 : 마을에서 활쏘기 시합을 하며 예법을 익히는 일)와 향음주(鄕飮酒 : 향촌의 선비와 유생들이 향교 등에 모여 예로써 주연을 함께 즐기는 향촌의례)의 의례를 만들어서 그들을 화락하게 인도하고, 선을 표창하여 권장해서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하고, 악을 물리쳐서 징계하여 돌아서야 할 것에서 과감히 돌아서게 하면, 앞으로 학교의 교육은 성대해질 것이요, 향당(鄕黨)은 공경과 겸양의 풍속을 일으킬 것이니, 한 시대에 큰 도가 일어나고 형벌을 버려두고 사용하지 않으며, 예악이 성대해질 것이다.

해설

본문에 소개하는 것 외에 율곡선생은 제사를 바르게 하여 미신을 없애는 문제, 선악을 분별하여 풍속을 바로잡는 문제, 고대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등을 언급하였다. 요점은 백성들에게 항산(恒産)이 있게 한 후에 임금부터 바른 도리를 실천하기 힘쓰며, 학교를 세워 가르치고 풍속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교육 내용은 오륜(五倫)과 관계된다.

문제는 국가의 혼란이나 풍속이 잘못되는 문제에 대해서 형법만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형벌만 강화하면 백성들은 더 뻔뻔해지고 법을 어겨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공자의 생각을 잇고 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생각해 볼 문제

1.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오로지 원칙과 법만 적용해서 오히려 잘못되는 사례와, 덕으로 다스리고 예를 가르침으로써 바르게 된 사례를 한 가지씩 말해보세요.

2. 가르침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 옛날 선조들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교육과 오늘날 교육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율곡 선생이 말한 학교의 기능과 오늘날 학교의 기능이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자.

4. 천하의 풍속이 모두 군자의 풍속이라면 위정자의 정치와 교화가 선한 것이고, 천하의 풍속이 군자의 도에 합당하지 않다면 이것은 위정자의 정치가 선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리나라의 풍속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선하게 느껴진다면 위정자의 어떤 점이 선한 것인지, 또는 군자의 도에 합당하지 않다면 위정자의 어떤 점이 선하지 않은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5. 율곡 선생의 말에 따르면 옛날에는 선비들이 벼슬을 구하지 않아도 학문이 완성되면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천거해서 인재를 등용했다고 한다. 따라서 벼슬이란 남을 위한 것이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히 지위가 높은 자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아야 하니, 정의를 실현할 수 없으면 물러나야 하고, 만일 집이 가난해서 녹봉을 받기 위한 벼슬을 면치 못한다면, 반드시 내직을 사양하고 외직으로 나가며, 높은 자리를 사양하고 낮은 자리에 머물러서 굶주림과 추위를 면할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비록 녹봉을 받기 위한 벼슬이라 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청렴하고 부지런히 공무를 받들어 행하여 그 직무를 다해야지, 직분을 버려두고 먹고 마시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율곡 선생이 한 말을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개선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 보자.

한문 익히기

자 왈 도 지 이 정 제 지 이 형 민 면 이 무 치
子曰 道之以政하고 齊之以刑이면 民免而無恥니라.
도 지 이 덕 제 지 이 례 유 치 차 격
道之以德하고 齊之以禮면 有恥且格이니라(『논어』).

한자 풀이와 해설

道 : 길, 도리/之 : 대명사/以 : ~로써/政 : 정사, 법령/齊 : 다스리다, 가지런히 하다/刑 : 형벌/民 : 백성/免 : 면하다/而 : 접속사/無 : 없다/恥 : 부끄러워하다/德 : 덕/禮 : 예법/有 : 있다/且 : 또/格 : 바로잡다, 이르다

*道 : 여기서는 인도하다의 導의 뜻으로 쓰였다.

*政 : 법제와 금령(禁令)을 말함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면이무치(免而無恥) : 법을 어겼음에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으로, 법을 어기고도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지 않음을 가리키는 말.

해석

공자가 말하였다. "법령[政]으로 인도[道]하고 형벌로 다스리면[齊] 백성들은 형벌을 모면하려고만 할 뿐 부끄러움이 없다. 덕으로 인도하고 예(禮)로 다스리면 부끄러움을 알고, 또 착하게 될 것이다."

옥불탁 불성기 인불학 부지도
玉不琢이면 不成器요 人不學이면 不知道니라(『예기』).

한자 풀이와 해설

玉 : 옥, 구슬/不 : 아니하다/琢 : 쪼다, 옥을 다듬다/成 : 이루다/ 器 : 그릇/人 :사람/學 : 배우다/知 : 알다/道 : 길, 도리, 이치

*대귀를 이루는 병렬문이다.

*'玉不琢則不成器'가 되면 뜻이 분명해지나 則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된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불학(不學) : 배우지 않음. 학문적 성과나 발전이 없음

*옥불탁불성기(玉不琢不成器) : 옥의 바탕이 본시 아름답지만 다듬지 아니하면 쓰지 못한다는 뜻으로, 천성이 뛰어나도 학문을 닦지 아니하면 뛰어난 인물이 되지 못함을 비유한 말

해석

옥은 갈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